

<완전한 내란 종식 - 헌정 질서 회복이 최우선이다>

내란은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란 종식에 박차를 가하라!

2025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계엄의 총구가 주권자 국민을 겨냥하던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승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주범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핵심 가담자조차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있으니, 숨어 있는 부역자 색출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계엄군은 해산됐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세력 앞에 멈춰 섰고,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깨어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일동은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식지 않은 분노를 담아 사법부와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첫째, 내란 주동자, 가담자들과 이를 방조한 자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란에 관용은 없습니다. 국가 전복을 꾀한 자들에게 마땅한 대가는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하는 것뿐입니다. 내란의 핵심 주동자, 가담자뿐 아니라, 마땅히 이를 저지해야 할 자리에서 방관하고 묵인하고, 되려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 단죄해야 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은 정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정의의 길입니다.

둘째, 내란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추상 같은 엄벌의 의지가 아닌 온정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법감정과 헌법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 정의 실현의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내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단, 이 과정이 내란 재판의 지연이나 내란 주동자 석방의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에 경고합니다. 구속기간 만료 명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을 석방하는 일은 절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이 1심 재판 지연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핑계로 또다시 석방될 가능성에 분노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또다시 거리를 확보하게 만든다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처벌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풀려나는 순간, 사법부는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에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